

“유재석밖에 할수 없는 ‘플레이유’...역시 국민MC”

카카오TV 예능물 ‘플레이유’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
김노은 PD, 라방 위험 부담 따르지만 “유재석 100% 신뢰”

“플레이유는 유재석밖에 할 수 없는 프로 그램이다.”

국민 MC 유재석이 카카오TV 예능물 ‘플레이유’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가수 유희열이 수장인 연예기획사 안테나로 소속을 옮기면서 변화를 예고한 상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안테나를 풀으면서 유재석이 카카오TV 예능물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플레이유 기획 전부터 유재석씨를 섭외했다. 새로운 포맷을 하고 싶다고 해 유재석씨밖에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시간 동안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혼자 오디오까지 채울 수 있는 연예인이 많지 않는데, 유재석씨는 최적화된 MC다.”(김노은 PD)

플레이유에서 유재석은 라이브를 통해 시청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을 수행하는 공간은 풀이형 현실 속 ‘맵’ 안에서 제한 시간 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시청자, 일명 플레이어들은 실시간으로 유재석에게 전략을 제안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시청자들은 게임 캐릭터를 플레이 하듯 화면 속 유재석을 지켜보며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 PD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기에 채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청자 아이디어가 미션 성공·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몰입감이 높다. 유재석씨와 시청자간 가장 가까운 방송”이라며 “실시간으로 유재석씨와 대화를 나누고, 시청자와 반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유재석씨는 기획안을 보자마자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해 부담되지만 ‘새로운 시도라서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나의 미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라는 아이디어를 줘서 제작진이 구체화했다. 이후 유재석씨가 ‘대본을 안 줘도 된다. 그래야 훨씬 몰입감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댓글을 보고 리얼한 감정을 보여줬다. 시청자가 있어 외롭지 않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라방은 지난달 15일부터 카카오TV와 플레이유 유튜브 채널에서 총 네 차례 진행한 상태다. 유재석 팬층이 다양한 만큼, 시청층도 10대~60대까지 폭 넓었다. “남녀 참여자의 거의 반반”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유희열이 실시간으로 댓글에 참여해 웃음을 줬다. “유희열씨 참여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1~3회차 라이브 방송에 모두 들어왔고, 4회차 때만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과 겹쳐서 못 들어왔다. 댓글을 꽤 남겨서 분방에도 사용했다. ‘이제 화요일 스케줄은 스케치북과 플레이유 2개’라고 하더라. (유재석씨 소속사) 대표님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김 PD는 대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역시 국민 MC 유재석”이라며 감탄하고 있다. “현장에서 당황할 때도 있지만, PPL 상자를 보고 재미있게 푸는 등 예능적으로 잘 살려줬다”며 “(유재석씨가 SNS도 안 하지만) 아들 지호가 있어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의 인터넷 문화를 아예 모르지는 않더라. 생각보다 잘 해줬다”고 극찬했다. “사전에 유재석씨에게 ‘시청자들을 친근하게 대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어떻게 반말을 하느냐고 했는데 누구보다 잘했다’며 “더 재미있고 편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 ‘반말모드’를 허락 받았다. 시청자들도 편하게 반말과 댓글을 올렸다”고 했다.

방송 녹화를 실시간으로 공개, 위험 부담

도 따를 수밖에 없다. 카카오TV와 유튜브 모니터링 직원을 두고 “실시간으로 악플을 체크해 블라인드처리한다”고 귀띔했다. “제작진은 많이 긴장한다”면서도 “라이브 방송만의 낯맛이 있다. 유재석씨가 있기에 어떤 상황이라도 방송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100%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시청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콘셉트는 이미 익숙한 포맷이다. MBC TV 예능물 ‘마이리틀텔레비전’ 시즌 1·2(2015~2017·2019~2020)가 대표적이다. 유튜브와 OTT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웹예능물도 이 포맷을 사용했다. 김 PD는 “마리텔은 출연자가 준비한 콘텐츠가 중심이고 시청자 리액션으로 소통했다”며 “플레이유는 제작진이 마련한 맵에서 유재석과 시청자가 같이 미션을 해결하고 있다. 시청자 능동성이 커졌고, 통제된 스튜디오가 아니라 야외로 나와서 더욱 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PD는 MBC 출신이다. 2011년 JTBC로 옮긴 뒤 ‘상상연대대전’(2012~2013) ‘철전’(2013~2015) ‘비정상회담’(2016~2017) 등을 연출했다. 유재석과는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2’(2018)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아는형님’에선 강호동과 호흡을 맞췄다. “강호동은 카리스마로 이끄는 강한 리더십이 있다. 반면 유재석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녔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도 끌려오는 매력이었다. 내가 감히 평가할 분이 아니다. 두분 다 대단한 분들”이라며 “아는형님은 멤버들과 케미와 게스트들이 많이 부각됐다면, 플레이유는 유재석씨만 나와서 신경쓰는 부분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유는 카카오TV 예능물로서 한 획을 그을 수 있을까. 12일 오후 5시 분방송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시제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당연히 부담감이 크다. 처음에는 라이브로 녹화 현상이 모두 공개되는 게 부담돼 잠도 안 왔는데, 유재석씨가 있어서 큰 지가 됐다. 12회까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싶다. 대중성을 위해 유재석씨와 플레이유를 시작했는데, 조금 마이너 하면서 전문적인 분야로 가면 (다른 분들로) 확

장할 수 있지 않을까. 플레이유 외에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기 어려운, 뉴미디어에 맞는 예능물도 해보고 싶다.”

이효리의 ‘서울체크인’...티빙 유료가입기여자수 1위



티빙 오리지널 ‘서울체크인’이 3일 연속 티빙 유료가입기여자수 1위를 차지했다. 3일간 시청 UV는 공개 첫날 대비 376%나

3일간 시청 UV 공개 첫날 대비 376% 증가

증가하며 이용자의 뜨거운 반응을 입증했다. 3일간 시청UV 수치는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중 런칭 첫 주 기준 역대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러한 반응은 지난 파일럿 콘텐츠보다 동일 기간 기준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8일 첫 공개된 ‘서울체크인’은 제주를 떠나 서울로 체크인한 이효리가 포스터 촬영을 시작으로 친한 동생 가수 겸 배우 비와 게으먼 박나래·홍현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효리는 ‘서울 체크인’ 포스터를 촬영하러 도착해 가수 겸 배우 비가 선물한 커피차를 시작으로 기본 좋게 촬영에 임했다. 그는 어떤 콘셉트도 자연스럽게 소화해 ‘역시 이효리’라는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이태원의 캣데일바를 찾은 이효리는

비와의 즉석 만남에서 나는 대화들로 남매케미를 선사해 유쾌한 웃음과 공감을 얻었다.

특히 이효리와 박나래의 만남은 진솔한 이야기들로 따뜻한 위로를 선사했다.

이효리와 박나래는 처음 만났지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흥현희까지 합세해 일과 사랑·결혼 등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말만 하자 우리”, “항상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었다” 등 연예계 후배이자 동생들에게 전하는 이효리의 한마디는 보는 이들에게 감동케 했다. 박나래와 헤어지며 “잘 하고 있어”라고 전한 진심은 박찬 율리프로 다가왔다.

한편 ‘서울체크인’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공개된다.

tvN 드라마 ‘별똥별’ 리얼한 연예계 현장



오는 22일 공개 예정

연수 작가와 이성경·김영대·윤종훈·김윤혜·박소진·이정신이 의기투합했다.

무엇보다 ‘별똥별’은 ‘별들의 똥을 치우는 별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슬로건답게 스타를 향해 쏟아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졌던 연예계 종사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점에서 흥미를 높인다. 스타의 최측근인 매니저와 홍보팀, 연예부 기자와 엔터 고문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연예계 최전선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현장 이야기를 리얼하게 그려내 연예계를 향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예정이다.

더불어 집필을 맡은 최연수 작가가 실제 매니저로서 오랜 근무 이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스토리를 기대하게 만든다.

‘별똥별’이 리얼한 연예계를 낱낱이 파헤친다.

오는 22일 오후 10시 40분에 첫 방송되는 tvN 금토드라마 ‘별똥별’은 ‘별(STAR)들의 똥을 치우는 별별 사람들’이란 뜻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들의 뒤에서 그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 피·땀·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리얼한 현장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그 남자의 기억법’·‘마녀식당으로 오세요’ 등을 연출한 이수현 PD가 메가폰을 잡았고 최

빅뱅, 저력 과시...美 ‘빌보드 글로벌’ 상위권

그룹 ‘빅뱅’이 신곡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로 미국 빌보드 주요 차트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11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빅뱅의 ‘봄여름가을겨울’은 16일 차 미국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3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국을 포함해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글로벌 200’(Billboard Global 200) 차트에서는 9위에 올랐다.

두 차트는 세계 200여 지역에서 수집된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다운로드)을 토대로 한다. 미국 빌보드가 대중음악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새롭게 만든 기준이어서 글로벌 메인 차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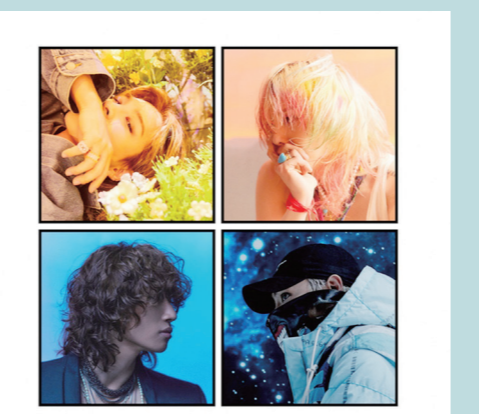
빌보드는 빅뱅의 ‘봄여름가을겨울’이 이번 차트 집계 기간(4월 2~8일) 동안 전 세계

적으로 3400만 스트리밍과 2만 9700 판매량(다운로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발매돼 단 3일 만의 집계로 이 같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

빅뱅은 2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 중 하나로 해외에서 K팝이 인기를 누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군 복무 등으로 4년 만에 발표한 이번 신곡이 해외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저력을 과시했다.

해당 곡은 발매 첫날 아이튠즈 33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월드 와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 중국과 일본의 최대 음원 사이트인 QQ뮤직, 라인뮤직 실시간 차트를 휩쓸 바 있다.

국내에서는 멜론 톱100 24Hits를 비롯해 플로, 지니, 벅스, 바이브 등 모든 주요 음원 차트서 8일째 정상을 지키고 있다.



‘봄여름가을겨울’은 빅뱅의 지난 날에 대한 단상과 고민,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빅뱅의 약 4년 만 컴백곡이자 별다른 프로모션 없이 오직 음악 자체로 사랑받고 있는 점을 떠올리면 이들의 막강한 존재감을 새삼 확신케 한다는 평가’라고 자평했다.

정준호 영화 복귀... ‘어부바’ 다음달 개봉

배우 정준호가 다음 달 영화로 복귀한다.

글로벌엔터테인먼트는 정준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어부바’가 다음 달 11일 개봉한다고 밝혔다. 정준호는 2020년 ‘히트맨’ 이후 2년만에 새 영화를 내놓는다.

‘어부바’는 늦둥이 아들과 절친한 동생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어부바호를 지키려는 선장 종범의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영화다. 정준호가 종범을 연기했다. 정준호는 앞서 이번 작품에 대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집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생각이 났고, ‘어부바’의 따뜻한 이야기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종범의 아들 ‘노마’는 아역배우 이엘빈이, 동생 ‘중훈’은 최대철이 맡았다.